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에페 2,14)

- 평화 위로 감사 십자가의 길

심홍보 신부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에페 2,14)

- 평화 십자가의 길

머리말	3
십자가의 길 14처	5
십자가의 길 0 가톨릭 기도서	6
십자가의 길 1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에페 2,14)	13
십자가의 길 2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필리 3,7)	25
십자가의 길 3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필리 2,5)	37
십자가의 길 4 “용서해 주셨습니다”(콜로 2,13)	49
십자가의 길 5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1테살 5,18)	61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며

지난 2014년 사순절에는 성가정을 주제로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재의 수요일 다음 금요일과 성금요일에는 가톨릭 기도서의 십자가의 길을 바쳤고, 사순 제1주간에서 사순 제5주간 금요일까지,

첫 주간은 ‘일반 개인 차원의 주님을 향한 영성의 길목에서’,

둘째 주간은 ‘부모의 은덕을 기리며’,

셋째 주간은 ‘부부의 정을 기리며’,

넷째 주간은 ‘자녀의 꿈을 이루며’,

다섯째 주간은 ‘교회 공동체 차원의 사도직 활동의 여정에서’라는 주제로 성가정 십자가의 길을 써서 바쳤습니다.

사순 시기를 마친 다음 곧바로 2015년에 바칠 십자가의 길의 주제를 몇 개월 동안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10월 교구 사제피정에 들어가 기도를 하면서 불현듯 이번에는 사 복음과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마르코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둘째 주간은 ‘교회를 주제로 묘사한 마태오 복음의 하늘 나라’를,

셋째 주간은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루카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넷째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요한 복음의 하느님 나라’를,

다섯째 주간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역사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사도행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16년 제주 엠마오 연수를 다녀오면서 한 해 쉬다가, 수색 예수성심 성당에 부임하며 위의 두 십자가의 길을 반복하면서, 2019년 자연스레 바오로 사도의 서간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신 바오로 사도의 열정과 헌신이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를 주님과 교회로 이끌어줍니다.

첫 주간은 ‘로마서의 희망 십자가의 길’을,

둘째 주간은 ‘코린토 전서의 믿음 십자가의 길’을,

셋째 주간은 ‘코린토 전서의 사랑 십자가의 길’을,

넷째 주간은 ‘코린토 후서의 위로 십자가의 길’을,

다섯째 주간은 ‘갈라티아서의 찬미와 영광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20년 전년도에 이어 ‘평화 위로 감사’라는 주제로 십자가의 길을 그려봅니다.
첫 주간은 ‘에페소서의 평화 십자가의 길’을,
둘째 주간은 ‘필리피서의 힘과 용기 십자가의 길’을,
셋째 주간은 ‘필리피서서의 위로 십자가의 길’을,
넷째 주간은 ‘콜로새서의 용서 십자가의 길’을,
다섯째 주간은 ‘테살로니카 전서의 감사 십자가의 길’을 썼습니다.

2020년 사순절의 문턱에서
수색 예수성심 성당 주임사제
심홍보 베드로 신부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목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 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제 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목상합시다.

제 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목상합시다.

제 4처 예수님께서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목상합시다.

제 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목상합시다.

제 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목상합시다.

제 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목상합시다.

제 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목상합시다.

제 9처 예수님께서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목상합시다.

제10처 예수님께서서 옷 벗김 당하심을 목상합시다.

제11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목상합시다.

제1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목상합시다.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목상합시다.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목상합시다.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십자가의 길

- 가톨릭 기도서 -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아무런 죄도 없이 극심한 모욕과 사형선고를 받으셨으니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벌에서
저희를 구원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이 무거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셨으니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에 눌러 넘어지시는
고통과 모욕을 당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주님을 변함없이 섬기며
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님,

괴로운 십자가의 길에서 서로 만나시어
사무치는 아픔을 겪으셨으니
저희 마음에 사랑을 복돋아 주시어
주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데에
장애 되는 모든 것을 물리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시몬이 주님을 도와 십자가를 졌으니
저희도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십자가를
날마다 기꺼이 지고 가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나쁜 무리가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님을 업신여기며 모욕하였듯이
저희도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더럽히는 것이오니
통회의 눈물로
주님의 얼굴을 씻어드리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두 번째 넘어지시는 고욕을 당하셨으니
주님을 한결같이 섬기지 못하고
다시 죄에 떨어져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다시는 세속과 육신의 간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 죄로 상처를 받으시고
온몸이 헤어지셨으니
저희에게 풍부한 은총을 내리시어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를 뉘우치며
주님의 품을 찾아 들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무거운 저희 죄에 눌리시어

세 번이나 무참히 넘어지셨으니

그 수난의 공로를 저희에게 나누어 주시어

저희가 이미 지은 죄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병사들이 난폭하게 주님의 옷을 벗길 때에

살이 묻어나는 극도의 고통을 당하셨으며

죄수로 군중 앞에 서시는 모욕을 당하셨으니

저희가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알몸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달리셨으니

저희도 주님과 같이

몸과 마음을 희생제물로 봉헌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으니

저희도 십자가에 못박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구세주 예수님,

혹시라도 영원히 주님을 떠날 불행이 저희에게 닥칠양이면

차라리 지금 주님과 함께 죽는 행복을 내려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구세주 예수님,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품에 안으신

성모님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성모님 품안에서

효성스러운 자녀로 살다가

마침내 그 품안에서 죽게 하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돌무덤에 묻히신 구세주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사랑의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하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에페 2,14)

- 에페소서의 평화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목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에페 1,3)

주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가족과 친지

먹을 것, 입을 것,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에 감사드리고 만족하며 살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기를 위하여

주님께 이것저것 청하기를 계속하며

지금까지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마음보다

더 많이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고 원망마저 하며

주 하느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평화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에페 1,4.7)

주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탐욕을 다 들어주지 못한 책임을 지고
우리 죄악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우리의 탐욕이 주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만들었지만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평화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되었을 때,

약속된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에페 1,12-13)

우리가 먹고사는 일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에 빠져서

미처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마치 무시라도 하듯이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처세술에 빠져

주님을 지치게 만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평화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나도 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 때문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에페 1,15-16)

우리는 늘 성모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정작 십자가에 못박은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못박으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께 청합니다.
우리의 청을 들으시며 성모님은 시선을 어디에 두실까!
아마도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을 담으신 성모님이시기에
아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자비로운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성모님께 의지하여 청하오니
주님,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평화를 주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자비가 풍성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에페 2,4-5)

우리가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유는

은혜로이 우리를 구하신 주님께 자녀다운 마땅함이기

시몬과 함께 주님 십자가의 구원사업에 참여하나이다.

“아버지께는 저희의 찬미가 필요하지 않으나

저희가 감사를 드림은 아버지의 은사이옵니다.

저희 찬미가 아버지께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으나

저희에게는 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도움이 되나이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평화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에페 2,6.8)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사랑과 보답으로

우리 처지도 망각한 채 감히 주제넘게도 주님께 향합니다.

베로니카가 주님의 모습을 수건에 담았듯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땀과 고뇌의 십자가를

우리 품에 안고 살립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평화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에페 2,10)

우리는 내가 먼저, 더 많이 받아 누리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시키면서 살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르기를 바라며

내가 중시하는 것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내가 무리하는 줄 알면서도
기대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문제아나 반항아로 낙인찍고

불이익과 폭력으로 굴복하게 하거나

심지어는 없어지기를 바라기조차 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시기과 질투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평화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대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치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에페 2,14)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온 집안과 사회의 일들을 통해
우리는 갖가지 편견과 상처,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누군가를 만나면 경계와 거부, 선긋기와 차별을 합니다.
신뢰보다는 의심, 사랑보다는 미움을, 용서보다는 원망을,
일치보다는 분열을, 진리보다는 그릇됨을, 희망보다는 절망을,
빛보다는 어둠을, 기쁨보다는 아픔과 고통을 주고받으며
우리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을 짓누르며 삽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평화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겪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에페 3,12-13)

역사상 많은 분이 인류사회의 계발과 성숙을 위해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애와 상황들이 고되고 힘겨웠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떠나가고

어떤 이들은 이분들의 뒤를 이어가고자 나섰습니다.

주님 저희도 주님의 뒤를 이어나가고자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평화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내적 인간이 당신 힘으로 굳세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에페 3,16-17)

발가벗겨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알몸과 함께

우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드러난 민낯보다 더 거룩해지도록

주님께서서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휘감아주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만이 남아 있기를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평화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에페 4,22-24)

주님과 일치하는 것이

결국,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자꾸만 피하고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육으로 편안해지고 안락해지고자 하는 미련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세상 구원을 위한 희생제사에 참여하여

육의 고단함과 번거로움을 피하지 않고

영의 충만함과 위안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평화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에페 5,2)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누구나 더 잘 살고 싶은 욕구를 불태우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끝끝내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섬기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쳐 산화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랑의 화신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 주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평화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에페 5,8-10)

사도들은 한때 갈릴래아로 떨어져 나간 어부였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존경을 받기보다 멸시를 받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고

오늘 우리 교회의 사도로 추앙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인간적으로 꿈꾸었던 부귀영화가

십자가에서 내리는 예수님의 사체와 함께 사그라집니다.

처절한 마음으로 주검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삼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평화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에페 6,10.12)
예수님의 주검을 무덤에 안치하며
제자들과 여인들은 서러움과 막막함과 허무함에 잠깁니다.
주님을 따르던 모든 이들이 간직했던
꿈과 열정이 시들어지고 생명마저 위협받습니다.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을 법한 무덤 한가운데로 주검을 모시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싶건만
인류의 죄악을 별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짓값이 되심으로써
인간을 구하시고자 하셨던 주님의 말씀과 기적들을 되새기며
주님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기다립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평화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에페 6,17-18)

이 땅에서 사명을 다 이루시고

저승에 가시어 죽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신 예수님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아무 죄없이 죽임을 당하셨던

아들 예수님에게 다시 생명을 건네주시며

악에 갇힌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인류를 전리품처럼 내어주시고

인류의 주님으로 삼으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를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다시는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시고 평화를 주소서.

잠깐 목상합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필리 3,7)

- 필리피서의 힘과 용기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필리 1,4-5)**

우리는 세례를 통해 지금까지 지은 죄에서 죽고

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 태어납니다.

그동안의 모든 구태 악습에 사형선고를 내리고

주님께서 일러주는 복음의 새로운 길로 접어들입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향하여 걷고자 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필리 1,6)

복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길은

탐욕과 무한경쟁의 피라미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의 인내와 절제와 희생의 길입니다.

그 길을 무사히 그리고 온전히 걸도록 해 주십시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필리 1,9-10)

착하게 살려고, 좋은 일 하려고
이것저것 전력을 기울여 다 해보았건만
이렇다 하게 주님과 형제자매들 앞에
드러내 보일만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인지 깨우쳐 주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의로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필리 1,10-11)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환희에 차서

주님 복음의 길을 선택하지만

곧이어 현실이라는 장벽에 부딪히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자비로운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성모님께 의지하여 청하오니

주님,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대부분의 형제들이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더욱 대담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필리 1,14)

주님의 말씀을 하나씩 둘씩 실현해 나가더라도

어느 순간 이만큼 하면 된 것 같고

더 이상 안 하더라도, 할 만큼 한 것 같아서

그만해도 될 듯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주님 복음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고,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필리 1,20)
주님 말씀의 길을 걸으며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의 빛을 순간적으로 잃고 헤맬 때,
메마른 얼굴과 험한 눈길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힘에 겹고 한계에 놓인 우리를 어여뻐 여기시어
위로와 평화의 수건으로 닦아주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편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합니다.”(필리 1,23-24)
아무도 함께해 주지 않을 때
나 스스로도 전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나 스스로의 자책과 패배감마저 팽배할 때

외롭고 처절하며, 쓸쓸하고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특권을,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까지 겪는

특권을 받았습니다.”(필리 1,27.29)

주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주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일처럼 수행하고

사업처럼 성과를 이루는 데만 열심이었습니다.

정작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잊었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필리 3,3)

매일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영하며

성사를 자주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건만,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거꾸로 세상에서의 입신양명과

신분상승을 위해 기도하고 청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의 무게를 줄여드리기는커녕

점점 더 무겁고 힘겹게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필리 3,7-8)
 살다보면 짐이 하나 둘 씩 쌓입니다.
 다 가져갈 수도 없고 다 쓰지도 않는 것들인데도
 다 그렇게 치우지 못하고 한둘씩 쌓여만 갑니다.
 우리의 무관심과 무관용 그리고 나누지 못한
 죄가 쌓여가는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필요한
 주님을 찾아 섬기게 하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필리 3,12)
 예수님은 할 만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누가 탓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부응하지 못한 우리 때문에
 아쉽고 안타깝게 일생을 마치셔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느님 나라를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이 땅에서 이루립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필리 3,20-21)

내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되어서야 뜨게 됩니다.

하지만 내일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내일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며 주님의 소명을 다 이루신 것같이

저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의 길을 나아갑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필리 4,4.6-7)

다 끝난 것 같고 희망도 위안도 없는 것 같은

막막함과 허망함 속에서도

동토에서 피어나는 새파란 새싹같이

하느님 나라의 시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의 꿈과 희망인 하느님 나라를

완성해 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필리 4,11-13)

이제나저제나 기대하며 기다리고

그야말로 막연할 정도로 꿈을 꾸는듯하지만

쉽사리 보이지도 드러나지도 않는 희망의 기운을

오직 믿음으로만 깨닫고 희망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몸소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나의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필리 4,19)

그러,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 오셔서

그 한 가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퍼부어주시고 일깨워주시며 감읍할 정도로 감동케 해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생애를 다 던져가면서까지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감사드리나이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시어 저희를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다시는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을 따를 힘과 용기를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필리 2,5)

- 필리피서의 위로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필리 2,1)

어떤 사람들은 만나면 싸운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만나면 서로 보듬고 감싸며 채워줍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처세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다른 이들이 지은 죄의 폐해와 상처들을 대신 뒤집어쓰고 삽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가없이 여기시어 위로해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필리 2,2)

우리는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함께 우리 동네, 우리가 머무는 지역사회 안에

하느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함께 활동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맞는 환경과 습관을 만들어내며

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기꺼이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가엾이 여기시어 위로해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필리 2,3)

혼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변함이 없는데

괜히 누군가가 곁에 있으면 비교하게 되고

왠지 모르게 평가하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솟아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 함께 모이고

사랑으로 함께 활동하여야 할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 걸려 넘어갔는가 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가없이 여기시어 위로해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필리 2,4)

나 먹고 살기 바빠서

누가 아픈지, 누가 병원에 입원했는지

누가 이 추운 계절에 불 한번 못 피우고 떨고 사는지

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밥 한 끼 편히 먹지 못한 채

하루를 외롭고 힘겹게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애로운 정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성모님께 의지하여 청하오니
주님,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가엾이 여기시어 위로해 주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필리 2,5)

내가 배고플 때 누구까지 함께 먹으려고 하는지

내가 추울 때 누구까지 덮어주려고 하는지

나의 관심과 사랑의 한계는 누구까지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과 문화를 넘어선

또 다른 나인 ‘너’들을 생각하고 헤아리며

착한 사마리아 사람과 시몬처럼 주님을 닮게 하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가엾이 여기시어 위로해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필리 2,6)

우리는 사순·부활 시기와 대림·성탄 시기에
어려운 누군가를 선정하여 도와주려 갑니다.

바쁜 시간에 간신히 시간을 내어 준비와 노력 봉사를 하며
스스로도 커다란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주님은 몇 시간, 몇 번 기회를 의도적으로 내서

째째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와 같은 인간 조건을 택하시어

그 한계지어진 상황과 처지 속에 함께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저희도 베로니카처럼 그 수고의 땀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가엾이 여기시어 위로해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7)

우리는 시간과 기회를 잡아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함께하고 나눠주고 도와주면서

주는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며
우리 스스로도 봉사활동을 했다 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대접마저 받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하시는데도
존경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대와 멸시와 사형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 위에 고꾸라지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가엾이 여기시어 위로해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리 2,7-8)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나셨으니

왜 사람같이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살고 싶으셨을 테고, 예수님도 다치지 않고

인류를 구하는 적절한 방법을 연구하셨을 텐데

그저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여

사람들의 죄를 씻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인간 스스로는 짊어질 수 없는

그 커다란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라고 하시기에

사랑 많은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생명을 내놓으시려고 수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끝까지 불쌍한 우리의 안위를 염려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가엾이 여기시어 위로해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필리 2,9)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적인 기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수 있으셨을 텐데도

굳이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멍청하리만큼 순수하게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묵묵히 따르시니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아들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의 머리에 두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가엾이 여기시어 위로해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필리 2,10-11)

날날이 발가벗겨진 예수님의 몸에서

유다인은 말라비틀어지고 불품없는 맨몸을 보면서

백성들이 아무런 신적 능력과 외적 권위가

전혀 없음을 발견하고 실망하리라고 기대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사익이나, 인간적 인기와 명예나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휘두르려는 권력조차 안 보이는 대신

자기 비움과 무한한 사랑에서 퍼져나오는

진리의 광채를 발견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당하고 미흡하기 그지없는 찬미를 받으옵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가없이 여기시어 위로해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십시오.”(필리 2,12)

우리 중 누구 하나 다른 이보다 부족하고 못나 보이지 않건만
순명의 덕을 최고의 덕으로 삼는 이유는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라는 이유로
다른 모든 방법을 다 제치시고

자신에게 절대적인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하고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 순명의 죽음이 모든 이의 구원은 물론이요
예수님 생애의 완성과 재생의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그 믿음과 희망을 간직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가엾이 여기시어 위로해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은 당신 호의에 따라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어,

의지를 일으키시고

그것을 실천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필리 2,13)

예수님께서 혹시,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

이게 다는 아닐까?’ 하고 허망해하고 한탄하셨는가?

그렇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그 어떤 생각과 의지보다도

더 좋고 올바르며 확실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주 예수님은 기꺼이 그리고 온전히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실 수 있으셨을까?
아버지 하느님께서 늘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시면서
아버지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주셨기에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몸소 활동하시어, 우리를 주님 사랑의 화신이 되게 하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가엾이 여기시어 위로해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필리 2,14-15)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데 뭔가 도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같은 일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편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해도

가끔 하느님은 내 편만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러려면 왜 믿어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소원대로라면, 나는 하느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수호신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느님이 나의 이익과 나의 신변보장만을 보태주신다면,

그분이 어찌 모든 이의 하느님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저 나의 담보요 수호자에 불과하겠지요.

나의 이해타산과 사욕에서 죽고 주님의 소명을 바라보겠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가없이 여기시어 위로해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달음질하거나

헛되이 애쓴 것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필리 2,16)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떤 때 갑자기 일이 닥치면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하고 너무 떨어져 살아서 그런지

예수님이 제 안에 죽어계신가 봐요.

막막하고 무덤덤한 제 맘속에

주님 사랑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가없이 여기시어 위로해 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 하여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필리 2,17-18)

주님은 진정 제물이 되어 생명을 소진하시는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몸을 바치셨나 봅니다.

조금의 아쉬움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저 우리 생명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새생명의 제단 위에 향처럼 쏟아부어지신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으니

새생명으로 피어오르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옵고

저희를 주님 사랑의 사도로 써주시고

저희가 힘겹고 낙담했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어 위로해 주소서.

잠깐 목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용서해 주셨습니다

(콜로 2,13)

- 콜로새서의 용서 십자가의 길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목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마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희망에 근거합니다.
이 희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하여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다다라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온 세상에서 그러하듯이
여러분에게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콜로 1,5-6)
주님의 사형선고가 우리에게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한계와 패배를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보렵니다.
내 안에서 복음이 한 칸씩 한 점씩 열매 맺도록 하면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희망 어린 화해와 용서를 허락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 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콜로 1,13-14)

그냥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말 안 듣고 자기 욕심만 채운다고 우리를 치우셨다면.

우리는 악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이 그야말로 고뇌와 고통의 나락이었건만

주님께서 은혜로이 건져주셨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희망 어린 화해와 용서를 허락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만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콜로 1,15-17)

주님은 우리를 지어내셨기에,

우리가 죄에 물들어 고통스럽게 살거나

악마에게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셨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온 맘으로 희생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살려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희망 어린 화해와 용서를 허락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가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만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콜로 1,18-19)

선구자가 외롭고 만이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듯

주님은 우리 인류와 피조물 모두의 만이로서
우리를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이끄시어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적 충만함에 머물게 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증인이시며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희망 어린 화해와 용서를 허락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이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아드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육체로 여러분과 화해하시어,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 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믿음에 기초를 두고 깨끗하게 견디어 내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희망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콜로 1,22-23)

아버지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너무나 걱정하신 나머지, 어거지로 살리십니다.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 죄값으로 삼으셨으니 말입니다.

거저 얻은 삶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희망 어린 화해와 용서를 허락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콜로 1,24)

베로니카는 주님 사랑의 수난을 가슴에 담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주님 사랑의 화신으로

주님의 뒤를 이어, 주님 수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 증거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주님의 세상 구원을 위한

수난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주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희망 어린 화해와 용서를 허락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콜로 2,6-7)

주님을 믿기는 하는데

말씀을 읽고 감탄하기는 하는데

막상 일상에서 실현하지 못합니다.

구태에 젖어서 본능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다 해 주시니 거듭 신세만 지고 있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희망 어린 화해와 용서를 허락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지 않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콜로 2,12-13)

예루살렘 부인들을 바라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마음은 그득한 그 여인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더 잘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간직하고 있는
무기력하고 부당하기에 부끄러운 우리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희망 어린 화해와 용서를 허락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이 세상의 정령들에게서 벗어났으면서도,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규정에 얽매어,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합니까?
그 모든 것은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들에 대한 규정으로,
인간의 법규와 가르침에 따른 것들일 뿐입니다.”(콜로 2,20-22)
제사 때마다 집안에서 흥동백서 등의 예식으로 시끄럽습니다.
어느 때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예식을 차리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따라야 할 규정이 많습니다.
격식을 차리는 것만으로 할 바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않고
진정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갈망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희망 어린 화해와 용서를 허락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콜로 3.4-5)

누가 그랬는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다고.

얻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행복한가요?

쓸데없는 물건들을 버리듯이

우리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과 사심들을 버립시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희망 어린 화해와 용서를 허락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 격분, 악의, 중상,

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수치스러운 말 따위는 모두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인간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 인간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지식에 이르게 됩니다.”(골로 3,8-10)

살면서 받아온 사랑과 은혜는 잘 잊어버리고

상처와 원망은 죄악의 뿌리처럼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서부터 해방됨으로써

주님 사랑 안에서 자유와 풍요의 기쁨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희망 어린 화해와 용서를 허락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골로 3,12-13)

가끔 나도 모르는 새, 어머님같이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는 분에게 감사는커녕

세상살이에서 오는 모든 화와 스트레스를 퍼붓게 됩니다.

나를 가장 편하게 해주고,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분에게

나도 모르게 불경과 불손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저를 굽어보소서.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희망 어린 화해와 용서를 허락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콜로 3,14-15)
주님, 주님을 따르기에 합당치 못하고
결맞은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지만
그저 미련곰탱이처럼 주님을 믿고 바라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받아주십시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희망 어린 화해와 용서를 허락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콜로 3,16-17)

나이 들고 병들어 이것저것 제대로 못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주님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귀여겨들어주소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찬미와 흠송의 기도이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희망 어린 화해와 용서를 허락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을 하느님께서 열어 주시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콜로 4,2-3)

저희가 주님께 찬미를 드릴 자격도 없고,

주님의 엄위하심을 훼손시키거나 하는
부당하고 미흡하기 그지없는 저희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서 기도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미의 노래를 올려드리나이다.

부활하신 주님,

늘 미루고 소홀하며 주님께 충실치 못한
저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헤아려주시어
미약한 정성이라도 봉헌하오니 받아주시어
주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랑의 도구로 써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1테살 5,18)

- 테살로니카 전서의 감사 십자가의 길 -

✠ 주 예수님,

- ◎ 저희를 위하여 온갖 수난을 겪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성모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나이다.
저희에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수난을 함께 나눌 마음을 주시어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성직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제1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처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모두 기억하며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노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의 인내를 기억합니다.”(1테살 1,2-3)

우리는 예수님의 사형선고에 분노하면서도

우리가 그 죄목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그 죄악에 보속하기 위하여

주님 사랑의 약속에 의지하며 사랑의 고리를 이어가립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2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처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선택되었음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힘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1테살 1,4-6)

아무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선택했고

그길로 우리를 초대한 주님께 응답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생겨나는 갖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제자로서

주님 말씀을 적용하며 하느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처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맡기신 복음을 그대로 전합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1테살 2,4)

우리는 하느님을 따르는 길이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길임을 잘 알고
그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요
나 스스로 구원의 새생명을 얻기 위하여
참사랑의 복음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처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누가 과연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과 기쁨과 자랑스러운 화관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1테살 2,19-20)
성모님께서서는 아들을 잃으신 슬픔 때문에 우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우리의 죄악으로 슬퍼하십니다.
성모님은 그러시고도 우리 죄가 씻겨 새로워졌으니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를 거십니다.

우리가 늘 다시 시작할 수 있기에
우리가 늘 새로워질 수 있기에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소서.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5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 짐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1테살 2,13)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나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일체 화내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기다리고만 계십니다. 시몬처럼!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6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재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로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하느님 앞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두고, 하느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1테살 3,7-9)

주님 사랑의 흔적을 수건에 담아 안은 베로니카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총과 축복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과 일가친척, 친지들에게
우리를 통해 드러난 주님 사랑의 흔적을 전하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이 기쁨도 함께.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7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 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1테살 3,12-13)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신앙을 다 증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기쁨과 생명에 다다른지 알고 있으며
 그 기쁨과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8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8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묵상합시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불륜을 멀리하고, 저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하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이교인들처럼
 색욕으로 아내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1테살 4,3-5)

우리가 설사 우리의 몫을 다 하지 못하고
 이승을 떠날 때에도, 어쩔 수 없기에도 그렇지만,
 부끄럽거나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이루지 못한 주님의 말씀을,
 늘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가 왜 다 이루지 못했는지
 무슨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기꺼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9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처 예수님께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다음으로, 그때까지 남아 있게 될 우리 산 이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1테살 4,16-17)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날에

우리를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르는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리 작은 사랑과 선행이라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죄악에 빠져있을 때조차도

우리가 고의나 악의로 주님 사랑을 배반하지 않았음을 다 아시기에!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0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처 예수님께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1테살 5,5-6)

주님은 우리의 민낯이 샅샅이 드러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무거운 죄들의 용서를 청할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작은 희생과 복음의 열매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1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진노의 심판을 받도록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차지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당신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1테살 5,9-10)

우리가 주 대전에 부끄러움으로 마주 뵈지도 못할 때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양팔 가득 품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착하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를 반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에서 등을 돌려 떠나지 않는한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2처로 가며)

-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 제12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아무도 다른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서로에게 좋고

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1테살 5,15)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잘못을 잘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잘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서 바치셨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죄인이어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사랑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현하렵니다.

특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는 주님 앞에 다가서며

나에게 잘못된 우리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렵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3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16-18)

우리는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해주실 분이 주님이시기에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새생명을 주시기에 기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 대전에 감히 자그마한 찬미와 흠송을 올려드립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4처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무엇이든 멀리하십시오.”(1테살 5,19-22)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도

우리가 전혀 느끼거나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만물을 다 안배해 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섭리로 보듬어 안아주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무리 앞이 안 보여도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을 넘어 곧 새벽 동이 터 오르듯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탐욕과 불평불만으로 점철된 저희를 내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제15처 제대로 가며)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5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예수 그리스도님, (깊은 절을 하며)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사도 성 바오로는 말합니다.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 없이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1테살 5,23-24)
주님을 마주 뵈을 그 때에 우리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핍계와 변명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과 상황,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인간 조건들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지 못하지만,
그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뵈을 때에는
주님께서 허락해주시고 펼쳐주시기에
우리는 온전해질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주 예수님을 온전히 뵈옵고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온전해져서
잠시의 지체도 없이, 아무런 방해도 없이 피어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늘 남 탓만 하고 여건만 탓하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과 함께 참 기쁨과 새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잠깐 묵상합니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